

## 서로 힘이 되어 주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로 일원에는 눈길을 끄는 환경과학공원이 있다. 곤충원, 과학관 등 친환경적인 장소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의 식사나 연인끼리의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아산그린타워가 랜드마크로 공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이 나들이로 즐겨 찾는 이곳은 하마터면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아산시가 지역 이기주의를 깨고 홍성군, 당진시와 건설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인 성과는 물론 기피시설을 해피시설로 바꾸어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 여기서 폐기물을 처리한다고요?

“아산시 폐기물 처리시설은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200톤의 생활폐기물과 하수침전물을 안전하게 소각하고, 여기서 발생한 고효율 에너지는 소각에 필요한 열원과 주민편익시설 및 곤충원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잉여 열원은 인근의 산업시설에 공급되며 자연에 무해한 상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말레이시아에서 온 손님들이 아산시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시 도시기획부국장 외 4명이 아산시의 선진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하러 온 것이다. 견학단은 반입된 폐기

물의 소각, 연소과정 및 발생된 배출가스의 처리 등 첨단 공해오염 방지시설들을 꼼꼼하게 둘러보았다. 또한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절감도 눈여겨보며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시에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한편, 주민편익시설 등을 갖춘 공원의 모습에 감탄했다.

“기피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으로 되어 있다니 놀랍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연간 37만 명의 방문객이 이어질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아산시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2013년에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정부 3.0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2014년에는 173개 시·군·구 지자체 기관이 공모한 ‘제4회 지자체 생산성지수 측정’에서 지방재정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안전행정부의 ‘사회기반시설 공동 활용 표준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유명한 벤치마킹 사례가 되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끊임없이 견학을 다녀가고 있으며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의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아산시 폐기물 소각장 시설 전경



폐기물 소각장 소각탑

그러나, 아산시가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국내외에서 유명세를 치를 정도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게 된 데에는 오랜 세월을 걸친 남 모르는 눈물과 수고가 숨어 있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폐기물 유희용

량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등 역발상의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 지금과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우여곡절 끝에 건립한 폐기물 처리시설

1994년, 아산시는 도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계획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기피 인식이 팽배해 있어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왔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지는 것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이 공무원을 감금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결사 반대!”

“폐기물 처리시설 결사 반대!”

주민들의 반대는 잦아들 줄을 몰랐고 반대집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다. 아산시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공모제를 실시하고자 2003년 9월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조건으로 입지 공개모집을 추진했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3곳이 있었으나 유치반대위원회 구성 등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다시 난관에 부딪힌 아산시는 그 타개책을 모색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기피시설이기 때문이니 단순히 현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에 집중하기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서 발상을 바꿔 봅시다!”

그러한 논의를 거쳐 아산시는 2004년 12월 다시 공모를 추진했다. 이번에는 ‘환경과학공원 조성권 이용료 수익의 10%를 마을기금 조성으로 사용’이라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190억 원의 인센티브, 현금 50억 원, 복지시설 건립 100억 원 소득사업 30억 원, 기타 10억 원’ 등의 조건도 붙였다. 또한, 주민대표, 대학교수, 시의원 등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시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금씩 설득해 나갔다. 그 결과 2005년 8월에 현재의 위치인 아산시 배미로 154 일원에 107,800㎡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가 결정될 수 있었다.

아산시 폐기물 처리시설은 2011년 5월에 완공되었다. 하루 소각량 200톤 규모였다. 이처럼 대용량 규모로 건설한 것은 당시 아산신도시 개발계획 추진 등 도시인구 증가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 폐기물이 부족해!

우여곡절 끝에 폐기물 처리시설 완공에 성공한 아산시. 아산시가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생태곤충원, 과학관, 주민센터, 레스토랑, 찜질방, 피트니스 센터 등이 부지 내에 함께 건설되었다. 누가 봐도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 친환경적인 모습이었다. 이곳은 지역 내에서 랜드마크가 되었고 2012년에만도 37만 명의 사람들이 다녀가는 도시인의 휴식처가 되었다.

그러나 아산시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아산신도시 개발계획의

축소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게 생긴 것이었다. 당시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아산신도시 조성 등의 개발 호재들로 인해 2016년에 아산시의 인구가 50만이 될 것을 예상하고 대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완공했는데, 개발계획은 축소되었고 아산시의 개발 호재가 찾아들어 감에 따라 사람들의 발길도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다.

“하루 200톤 처리를 예상하고 건설한 시설인데 하루 처리용량이 120톤 밖에 되지 않는다니. 생각했던 기준의 60%에 불과한 용량입니다.”

“60톤이나 되는 유희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폐기물량이 모자라는 데도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고정비용으로 연간 55억 원이나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불거져 나왔다. 담당 공무원인 김영만 씨(시설 7급)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어떻게 하면 폐기물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해 들어갔다. 어느 도시나 폐기물 처리는 필수적인 문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하다 보면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조사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는 홍성군과 당진시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부족한 폐기물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아산시는 홍성군과 당진시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의 단초를 열 수 있었다.

## 우리 서로 도움시다!

아산시는 부족한 폐기물을 구하기 위해 홍성군과 당진시와 협의를 시도했다.



폐기물 소각장 전망대

전망대 레스토랑

“홍성군에서는 폐기물 시설에 대한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정보를 파악해 보니 쓰레기 처리 때문에 고충이 많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폐기물 처리 문제로 어려움이 많죠. 저희 시설은 노후화되어 효율이 무척 떨어지는 데다 일일 처리용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 반대가 워낙 심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긴 했으나 1997년에 건설된 폐기물 처리 시설이 노후되어 환경문제의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처리 비용에 있어서도 연간 12억 원(16.5만 원/톤)이 소요되어, 2007년 신규 건설을 추진했으나 민원 및 자원 조달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연되고 있었다.

아산시는 당진시와도 협의를 시도했다. 당진시에서도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다.

“우리 당진시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없어서 폐기물 전량을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추진해 보았지만 민원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서요...”

당진시는 아예 자체 시설이 없는 데다 신설을 하려고 해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기피하는 인식 때문에 민원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더구나 위탁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위탁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간 39억 원(155,000원/톤)입니다.”

“아, 우리 아산시 경우보다 25% 정도나 더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지군요.”

홍성군과 당진시의 상황을 파악한 아산시는 두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제안을 시도했다.

“아산시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전국 최초로 주민공모제까지 실시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는 데 성공 하셨군요. 이제 폐기물 처리 때문에 속 썩을 일은 없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라니요?”

“하루 2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하였으나 오히려 하루 처리용량이 60%밖에 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폐기물 처리시설은 넉넉한데 오히려 처리할 폐기물이 부족하니 유휴용량을 처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아산시는 폐기물이 필요합니다. 홍성군과 당진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산시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함께 이용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손을 잡는다면 서로에게 아주 유익한 교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산시에서는 폐기물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폐기물을 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빌려 주신다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아산시는 시설을 빌려드리고, 홍성군과 당진시는 폐기물을 주시는 겁니다. 아산시에서는 저렴한 수수료만을 받고 폐기물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성군과 당진시는 아산시와 손을 잡았다. 아산시는 일일 처리할 폐기물이 부족하여 발생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유휴용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고, 홍성군과 당진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해서 받을 동등 구르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 누이 좋고

## 매부 좋고

아산시는 홍성군, 당진시와 차례차례 협약을 맺었다.

먼저 아산시는 홍성군과 2011년 11월에 ‘생활폐기물 위·수탁 처리 협약’을 맺었다. 하루 위·수탁 처리 용량은 20톤 규모로 했다. 계약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60개월, 수수료는 85,000원/톤이었다.

또한 당진시와 2013년 6월에 ‘생활폐기물 위·수탁 처리 협약’을 맺었다. 하루 위·수탁 처리용량은 40톤 규모로 했다. 계약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2개월, 수수료는 85,000원/톤이었다.

협약에 따라 홍성군과 당진시의 폐기물을 아산시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처리하게 되었다. 홍성군과 당진시는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지역 내 폐기물을 아산시에 위탁하였고 아산시는 아산시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돌려 홍성군과 아산시의 폐기물을 처리한 것이다.

그 결과 아산시와 홍성군, 당진시가 얻은 가시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은 상당했다. 우선 아산시의 경우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이 대폭 높아지고, 수수료 수입과 스팀 판매 등을 통한 세외 수입이 증가했다.

“우선 폐기물 처리시설의 유휴용량을 채울 수 있게 됨으로써 소각 효율을 60%에서 90%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또한, 홍성군과 당진시로부터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연간 14억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또 폐기물 소각량이 많아질수록 스팀 발생량이 증가하였는데 그 스팀을 판매하여 연간 17억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연간 31억 원의 세외 수입이 발생한 것이지요.”

이처럼 아산시는 처음에 의도하였던 소각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31억 원이라는 세외수입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홍성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저렴한 수수료로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절감액을 산출해 보면 연간 3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홍성군의 생활폐기물을 아산시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한 결과 첫째 소요 비용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립장 주변 환경 개선, 환경보호 및 에너지 시책에 부응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각 시설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매립장 부근의 분진, 소음 등에 의한 환경민원 발생도 감소하고 전문화된 광역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홍성군 내에 자체 시설을 건립할 경우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당진시의 경우도 홍성군과 비슷하다. 연간 4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체 시설을 건립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아산시, 홍성군, 당진시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그외 여러 가지 반사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홍성군과 당진시는 현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해 도시 발전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 기피시설에서 해피시설로 대변신!

“아빠, 이번 주말에는 아산환경과학공원으로 놀러가요!”

아산시 시민들의 가정에서는 이런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아산시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민들이 나들이 가기 좋은 장소로 다섯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인기가 있다. 아산시 시민들에게는 폐기물 처리시설보다는 아산환경과학공원이란 말이 더 익숙하다. 아산시는 지난 2010년 전국에 걸쳐 아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명칭을 공모한 결과 ‘아산환경과학공원’이란 이름을 얻었다. 이곳에는 건강문화센터, 생태곤충원, 장영실과학관, 주민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특히 아산그린타워는 150m의 타워로서 상부 1층은 전망대, 2층은 레스토랑 등 고급식당이 들어서 있는 아산시의 랜드마크 겸 명물이다. 2016년에는 국제 규모의 실내 수영장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이처럼 아산시는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던 폐기물 처리시설을 누구나 가고 싶은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신시키는 데 멋지게 성공했다. 당초 우려했던 환경오염 문제는 여열이용 절감시설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연간 35천톤), 기후변화체험관 조성, 쿨링포그 시설을 통해 말끔히 해소하였으며, 오히려 저탄속 녹색도시의 상징적인 시설이 되었다. 이로써 기존에 시설 설치를 반대했던 주민들도 그 반대를 후회할 정도로 현재의 소각시설은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또한 수수료 반입료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하기 때



아산환경과학공원 조감도



아산 생태곤충원

문에, 공동이용에 따른 반입 수수료 증대가 곧 주민지원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산환경과학공원 사례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과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기피시설이 해피시설로 변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지역 간, 지방자치단체 간 이기주의의 틀을 깨고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였으며,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진정한 국민화합을 이룬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은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녹색문화를 꽃피우는 터전으로서 아산시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행복한 환경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 할 것이다. \*

Interview

충청남도 아산시 /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 이용 담당자

“지자체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을!”

Q. 어떻게 해서 홍성군과 당진시에 협약을 제안하게 된 것인가요?

A. 아산시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유휴용량이 대량 발생하자 담당 공무원인 김영만 씨가 부족한 폐기물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파악하다가 홍성군과 당진시의 사례를 알게 된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보가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Q.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고충은 없었는지요?

A. 서로가 필요한 것이 분명하고 줄 수 있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협의는 원만하게 이뤄졌습니다. 협약을 맺고 폐기물 소각처리를 우리 아산시에서 하게 된 이후에 그 성과도 가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는 물론이고, 홍성군과 당진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경제적인 유익도 컸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손해 보지 않고 모두가 이익을 보았으니 진정한 윈윈입니다.

Q. 홍성군과 당진시의 폐기물을 아산시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A.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아산시에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장 건립하는 것이 아닌 데다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 추진의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Q. 아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사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아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협업에는 결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100여 명 매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의 틀을 깨고 조금 거시적인 입장에서 생각한 것뿐입니다.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생을 생각할 때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희도 배웠습니다.